

1월 19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월 19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일제 상승..'금융, 급한 불은 껐다' [다우: 8,281.22pt (+0.84%)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그룹분리와 정부지원을 통해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여 미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간 채 마감했음. 두 은행이 이날 급격한 실적 악화를 발표했고, 물가지표도 부담이 됐지만 투자자들은 금융권의 위기가 한고비를 넘긴데 주목했음.
씨티-BoA, '뇌관'은 제거..실적 악화	2차 금융쓰나미 재발 공포를 불러 일으킨 '뇌관' 씨티와 BoA는 그룹분리와 정부지원으로 한고비를 넘겼음. 재무부는 이날 BOA에 200억 달러를 투입하고 BOA의 자산 1,180억 달러를 보증해주기로 했음. 미 정부는 BOA가 메릴린치 손실을 감당하는 것을 돕고 금융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음.
유가 반등..만기일 접근 효과 [WTI: \$36.16 -\$0.35]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이날 발표한 월례 보고서에서 올해 하루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기존보다 100만배럴 줄어든 8,530만배럴로 향했음. 2008년 원유 수요량도 기존 전망치보다 7만배럴 줄어든 8,580만배럴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했음. 이는 2008년 원유 수요가 전년 대비 0.3%, 2009년 수요는 전년대비 0.6% 감소할 것임을 의미함.
산업생산-물가상승 동반 둔화	미국의 12월 산업생산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12월 산업생산은 2% 감소, 앞서 발표된 전문가 예상치 -1%를 두 배 밑돌았음. 설비 가동률도 73.6%을 기록, 기존 예상치 74.5%에 미치지 못했음. 경기 침체로 국내외 수요가 위축되는 가운데 전 업종이 생산을 줄였음.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연율 기준으로 1954년 이후 가장 낮은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2월 CPI는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0.1% 상승했고, 이는 앞서 발표된 전문가 예상치 -0.2%를 상회하는 수치임.
"올해 세계성장 절반은 중국 몫"	올해 중국의 세계경제 성장기여도가 무려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 세계 경제성장의 절반이 중국에서 이뤄진다는 뜻. 유엔 개발정책분석국은 16일 베이징(北京)에서 발표한 '2009년 세계경제 전망'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8% 이상을 유지할 경우 세계경제 기여도는 50%에 이를 것"이라고 밝힘. 보고서는 "올해 중국 경제는 8.4%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
日, 해외진출 자국기업 긴급 용자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자국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위해 내년 3월까지 시한부 조치로 수천억엔에서 1조엔 규모를 국제협력은행(JBIC)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8일 보도.

제목	주요 내용
日정부, 4개월 연속 경제 진단 하향 전망	일본 정부가 4개월 연속 경제 진단 하향을 고려 중이라고 17일(현지시간) 니혼케이자이신문이 보도. 일본 내각성은 화요일(20일)중 발표할 1월 경제 보고서에서 특히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 상황이 추가 악화되고 있다고 밝힌 전망.
"獨은행 불량자산 25%만 대손상각"	유럽발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은행들이 불량자산의 4분의 1만 대손상각 처리했기 때문에 향후 추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이 17일 보도. 연방정부의 경제 전문가들은 남아있는 대손상각이 상당해서 은행들에 "매우 과중한 손실을 추가로 안겨줄 수도 있다"고 경고.
영, 2차 구제금융 착수...최대 2,000억파운드	영국이 370억파운드를 쏟아부은지 불과 3달만에 추가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AP통신이 보도.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영국 은행들의 취약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조만간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C·D등급 건설사 `패닉`.. "그럴 리 없다"	건설업과 조선업 구조조정 선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평가 대상 기업들의 `회비`가 엇갈리고 있음. 워크아웃(C등급)이나 퇴출 기업(D등급)으로 분류된 기업들은 기업 규모나 시공 능력보다는 주로 재무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들 기업들은 `감독당국과 은행권의 평가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됨.
자사주 매입한도 확대 올해 연장 적용	지난해 주식시장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됐던 자사주 매입 한도 규제 완화 조치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자사주 매입 한도 특례 규정이 올해에도 적용되며, 규정은 일일 자사주 매입한도를 기업 총 주식의 1%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작년 9월 말 증시안정 긴급대책의 하나로 발표됐었음.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자사주 취득에 따른 왜곡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사주 매입규제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없다"며 "향후 시장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규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
코스닥 공모시장 살아났다	올해 공모를 진행한 코스닥 새내기주들은 모두 수백대의 일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 관계자들을 설레게 하고 있음. 상장 이후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아 공모시장이 새로운 안전 투자처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진 데다 지난해말 상장한 종목들이 속속 수익구간에 진입, 안전성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됨. 그리고 증시 급락으로 신규상장주의 공모가가 크게 낮아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안전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임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